

탄소중립 실천을 향한 작은 발걸음



남인숙 회장
한국부인회총본부

세계 곳곳에 폭염과 가뭄, 산불 등 이상 기후로 지구촌이 펄펄 끓고 있다. 올리브 주산지인 유럽 남부 지역에 폭염이 계속되면서 스페인의 농사가 2년 연속 흉작을 기록하고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의 올리브 생산량도 줄어 오일 업계가 위기에 빠졌다. 또한 이상 기후가 전 세계경작지를 덮치면서 쌀, 설탕, 카카오, 커피 등 식량 가격 급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곡물 가격이 치솟고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작황 문제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엘니뇨 같은 이상 기후가 덮치면 노지에서 키우는 배추와 무, 건 고추 생산이 줄어들고 비닐하우스 시설 채소들 역시 일조량이 부족해 성장에 차질을 빚게 된다. 전 세계 면화 재배량에도 영향을 미쳐 면화 최대산지인 미국과 중국의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으로 옷과 신발 가격이 뛰어오를 수 있다. 중국 광둥성에는 초속 38m의 강풍과 비가 몰아치는가 하면 북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기온이 섭씨 52.2도에 달하면서 역대 중국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일본에서는 아키타현의 대부분 지역이 일본 기상관측 이래 최대강우량을 기록했고 47개현 중 32곳에서 열사병 경보가 발령됐다. 인도 북부지역에서는 45년만에 최악의 홍수가 났다. 지구촌 곳곳을 강타한 폭우는 지구 온난화 탓으로 비의 강도와 강우량은 비구름을 만드는 수증기 양에 좌우된다. 해수면 온도 상승은 수증기 발생량을 증대시킨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식량부족에 시달리는 빈곤층이 늘어났으며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보금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났다. 1998년 지리산 폭우 이후 우리나라 강우 패턴이 바뀌었다고 한다. 더 이상 기후 위기의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100년 만에 한번 나타나는 강수량에 맞춰 건설한 둑이나 댐 교량 등 국가 기반 시설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여름 경북 예천과 같이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곳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은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24.4%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 2020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교육부를 비롯한 6개 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교육을 실시할 중점학교와 시범학교를 운영한다. 초·중·고 모든 교과에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많은 환경단체와 소비자 단체들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 중에 한국부인회는 평소에 차단되지 않는 전자기기 대기전력의 소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 내에서는 물론 사무실에서도 대기전력 제로 생활화를 유도하여 개인과 기업에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현대인은 아침에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매순간 다양한 전자제품을 사용하므로 전기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 없다. 다양해진 전자제품들을 편리하게 사용하다 보면 대기전력으로 소비되는 전력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 대기전력이란,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전기제품이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가정에서 쓰는 전기밥솥, 에어컨, 텔레비전, 셋톱박스 등은 물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복사기, 커피머신기 등의 전기제품은 코드만 꽂혀있어도 대기전력으로 인해 전력이 소비된다. 그래서 대기전력을 흔히 전기흡혈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한국전기연구원에 따르면 집에서 사용하는 전자·가전기기의 경우 시간당 평균 3.66W의 대기전력을 소비한다고 한다. 해마다 가구당 평균 전력소비량의 11%에 이르는 306W가 대기전력으로 새 나간다.

대기전력은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전원장치에서 전기 에너지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에너지가 낭비된다. 단순히 에너지 낭비뿐만 아니라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환경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 자주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경우 그냥 코드를 꽂아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낭비되는 전력은 보통 전기 요금의 10%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과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 중 대기전력으로 제일 많이 소모되는 전자기기는 셋톱박스(12.3W)이며 에어컨, 보일러, 인터넷 모뎀이 상대적으로 대기전력 소모량이 많다.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전자기기의 대기전력을 점검하고 차단하는 것을 생활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작은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다. ▲